



2020년 8월 11일 | Equity Research

반도체: 7월 TSMC 매출 M/M ↓. 8~9월 반등

투자이견

반도체 애널리스트 김경민, CFA

RA 김주연

Overweight

clairekm.kim@hanafn.com

kim_juyeon@hanafn.com

-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공급사 TSMC는 8월 10일에 7월 매출을 발표. NT\$ 105.9 billion (US 35.9억 달러)를 기록해 전월 대비 -12.3% 감소. 미국의 제재조치 강화 영향으로 화웨이/하이실리콘향 주문이 줄어들었기 때문.
- 7월 매출은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역대급 매출 시현. 2020년 6월 (NT\$ 120.8 billion), 3월 (NT\$ 113.5 billion)에 이어 사상 3번째로 높은 수준. 전년 동기 대비 +25.0%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시현.
- 월별 매출의 앞자리는 완전히 Level-up. 2019년 월평균 매출은 NT\$ 89.2 billion을 기록했는데, 2020년 월평균 매출은 1~7월 기준 NT\$ 103.9 billion을 기록. 월별 매출의 눈높이는 이제 NT\$ 100 billion로 고정.
- TSMC는 2Q20 실적 발표에서 2020년 매출 성장률 가이드를 US\$ 기준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기존 가이드는 mid-to-high-teen%). 7월까지의 실적 (누적 기준 +33.6% Y/Y)과 지난 1년 동안의 무난한 IR communication으로 미루어 보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매출의 30% 이상을 좌우하는 7nm 선단공정 가동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추정. TSMC의 고객사 중 하나인 AMD는 7월 28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7nm 수급이 타이트하다고, 즉 생산라인이 부족하다고 언급. (We are increasing capacity to meet those needs, but it is 'tight'. And I would say that as we continue to increase capacity, we see opportunity there.)
- TSMC는 9월 중순부터 미국의 제재조치에 따라 화웨이/하이실리콘향 선단공정의 웨이퍼 출하 (output)를 중단. (Under this current status, we do not plan to ship wafers after 14 September.) 다른 고객사들이 선단공정 가동률, 특히 7nm 가동률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음. TSMC 측에서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TSMC의 3Q20 매출 가이드는 US 112~115억 달러. 전 분기 대비 +9.3%를 의미. 7월 매출 발표치가 전월 대비 -12.3%였으므로, 8월과 9월에 M/M 기준 성장해야 3Q20 매출 가이드를 달성 가능. 대만의 모바일 SoC 공급사 MediaTek이 우선적으로 화웨이/하이실리콘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으로 예상.
- MediaTek의 7월 매출은 NT\$ 26.6 billion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2%, 전월 대비 +5.6% 증가. Fabless에 해당되는 MediaTek의 출하량이 증가했으므로, 서플라이 체인에 해당되는 Foundry (TSMC)로의 효과 파급 기대. MediaTek과 더불어 GPU 공급사 AMD와 엔비디아도 TSMC의 8~9월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TSMC를 기준으로 5G와 High Performance Computing (서버용, 통신장비용 고성능 시장) 수요가 실적을 견인. 인텔의 실적 컨퍼런스콜 이후 인텔의 CPU 위탁 생산 의뢰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이미 파운드리 업종 전체적으로는 높은 가동률과 타이트한 공급이 나타나고 있음.
- (1) 선단공정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인텔과 GlobalFoundries 위상 약화, (2)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고화소 전환, (3) 5G 향 칩의 Size 증가, (4) TWS (True Wireless Earphone) 출하 급증, (5) 코로나19 발발 이후 노트북용 및 의료기기용 칩 수요 증가 때문.
- 이와 같은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삼성전자는 2021년에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설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 향후에 지속적으로 한국 및 글로벌 Foundry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89.1%	10.2%	0.6%	99.9%

* 기준일: 2020년 08월 11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경민, CFA)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0년 08월 1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경민, CFA)는 2020년 08월 11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